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성령강림을 기념하는 성령강림절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리교회에서 정한 환경선교주일입니다.

환경부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생명사랑과 창조질서 보전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길 원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가 2부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단양 마늘 주문 예약 받습니다.

그간 교회관리인으로 수고하신 오진훈 노순옥 권사님이 사임하시고 김현동 오유경 집사님이 관리인으로 새롭게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환경선교주일을 맞아 잔반 제로에 도전해봅시다!

행 2:1~21 / 시 104:24~34 고전 12:3b~13 / 요 7:37~39

창 12:1-4

오늘 식당 봉사 : 권미숙 노성희 조경자 고학준 윤찬란 김윤수 김대근
 다음 주 식당봉사 :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경원 박경선 김현동 송동준
 오늘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 박진숙 추현영
 떡 커 피 대 접 : 오진훈 노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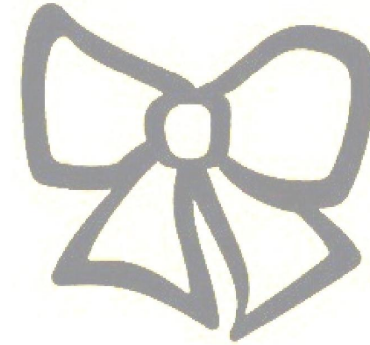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못 생명의 품이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자비로 모든 생명을 보듬듯이 우리도 다른 생명을 사랑으로 아끼며 살길 원합니다. 다른 존재를 이용가치로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혼자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버리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감사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큰 희생을 치르며 이룬 이 나라를 더욱 바르고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순배	김기석	김희우	김명순	이교영	김성한	조영순	김승현	김수진
김영순	김정수	김종철	고영애	김중수	이순정	노성희	김만균	류준모
심호선	문복순	박규석	박경선	박상규	박시내	백묘현	서원금	서정순
안정숙	우순덕	원용일	최현선	유금주	윤영미	이광석	이경희	이범석
류정욱	이에서	이우원	옥귀희	이응석	이은경	이인웅	오송경	이한림
김명희	임고운	오재형	정두리	정연희	정영우	김지윤	정완수	김재광
조병무	송양진	조순덕	주경진	이윤정	하정석	이명희	한상경	한상익
정영선	홍복선	홍소형	임이랑	홍순구	안홍숙	무명		

감사헌금

권미숙	김진중	문복순	박병구	박상규	신연화	박유경	김성우	시시권
백경임	안정숙	안홍숙	오미숙	은종인	이광재	이부곤	이왕준	송상경
이정은	이지하	전인섭	조혜윤	주명재	한성자	최미자	한미영	무명15

녹색꿈헌금

김용진	김정주	김정미	박호규	강영님	이은주	조은상	김소연	추현영
한성자	주명재	무명1						

	백혜숙	박성희	야유희	박영희
	신진식	최경미	서원금	신진식
	장영숙	신영신	박경원	김진경
	노순옥	진정숙	심원	문금석
	박홍재	박홍재	정선희	조영순
	권미숙	박미영	심원	방근숙
	김금순	김금순	심원	이봉옥
	곽권희	윤수진	심원	김재광
	안홍숙	오현정	심원	안홍숙
	정영선	홍춘숙	심원	정영선
	박혜경	박혜경	이기분	최숙화
	김재홍	오자영		
	김재홍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		

길

- 윤동주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엔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민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십시오. 귀한 것을 천하게 다루며 사는 것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주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십시오. 멸망으로 치닫는 삶에서 돌이켜 생명 살림의 길을 가십시오. 아멘. 흥청거리는 세상을 따라 살며 귀한 것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다짐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절약을 생활화하고 뜻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아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오편기 / 김기석 목사 기도 / 최경미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홍재 권사	하진솔 선생 이영란 집사

6	영접위원	방문성 윤성종 송동준 안정숙 김윤정 김진경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성찬으로 초대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회 중 :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 시작기도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저희의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진능하사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회 중 : 그러므로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미합니다.

집례자 :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셨고 새로운 빛을 보내시어 새 날을 맞게 하셨습니다.

회 중 :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창조의 새벽과도 같은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함께 :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성도와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 성찬 제정사 / 집례자

● 성령 임재의 기원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여기에 차려 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주십시오.

회 중 :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어주십시오.

● 영광 찬양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회 중 :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집례자 :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회 중 : 서로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집례자 :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 중 :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집례자 :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니.

회 중 : 아멘.

● 평화의 인사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또한 목사님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 :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 성도와 인사)

● 분병례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 :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회 중 : 아멘.

● 분급 / 집례자와 보좌

(앞으로 나와 준비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후 자리로 돌아가 앉아 모두가 성찬을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도한다)

집례자 :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회 중 : 아멘.

집례자 :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회 중 : 아멘.

● 성찬 후 감사기도 / 다함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으니 주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과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